

國語教育의 根本的 改革에 관한 研究

李 庸 周

(國語教育科)

I. 國語教育 沈滯 不振의 原因

우리 스스로가 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해 온 지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五次에 걸친 교육과정의 制·改定, 교과서의 개편, 교수방법이나 평가의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사 양성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노력은 상당한 부분 국어교육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었다. 또 제대로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국어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개념도 定立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 국어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발달단계별로 설정해서 국어교육을 본 궤도에 올려 놓지 못했다. 국어교육의 표류가 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참다운 국어교육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와 같은 신랄한 비판이 야속하기는 하지만 正鵠을 쫓는 것이 아닌가 한다. 조금만 국어 생활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주요 원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국어교육에 대한 科學的 研究가 없었다.
- 2) 따라서 국어교육의 科學的 基盤이 마련되지 못했다.
- 3) 결과적으로 국어교육에 專門性을 부여하지 못했다.
- 4) 국어교육에 대한 국민의 認識을 誤導했다.
- 5) 국어교육의 概念·性格이 模糊해졌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無性格한 教科, 모든 교육을 혼자 떠 맡은 綜合教育的 性격을 띤 教科로 인식하게 하였다.
- 6) 이러한 虛點은 국어교육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본고는 국어교육이 이와 같은 처지를 벗어나서 국어교육다운 국어교육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되는 것만 고쳐지면 국어교육의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主要 과제에 대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 의견 같은 것

※ 本 研究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에서 支給한 89年度 大學發展 基金 學術研究費에 의한 것임.

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폭넓게 그리고 깊이 연구됨으로써만 바로잡힐 것이다.

II. 國語教育 基本概念 確立과 鮮명한 一般目標 設定

국어교육의 기본개념 내지는 성격이 선명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 이런 실정에서 올바른 국어교육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敎科敎育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敎育 일반에서 각 교과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맡아 가지고 있는 역할 등을 鳥瞰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敎育法 第1章 總則 第1條에

敎育은 弘益人間的 理念 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의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 實現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고 하였다.

왜 교육을 하느냐 하는 目的이 정해지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敎育目標가 정해지며 그 敎育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敎科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國語科敎育이다.⁽²⁾

우리 敎育法에서는 中學校는 國民學校의, 高等學校는 中學校의 敎育 성과를 더욱 發展 擴充시킨다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다. 국민학교의 敎育 목표는 同法 第94條에서 七個項을 제시하고 있거니와 그 중에 國語科 設置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첫째 項이다.

日常生活에 必要한 國語를 正確하게 理解하며 使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고 되어 있다. 國語(科)敎育의 目標가 正確 適切하게 설정 제시되었다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설치된 각 敎科는 전체적인 敎育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分科인 것이다. 말하자면 分業이다. 이러한 현대의 學校敎育은 한 사람의 혼장이 漢文도 가르치고 文章의 내용인 哲學 倫理를 비롯하여 生活規範 文學 등등을 모두 도맡아서 가르치던 書堂의 敎育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각 敎科가 각각 그 敎育목표를 충실히 달

(1) 옛날의 書堂에서는 言語(漢文章)와 文章의 내용인 哲學 倫理 등 모두를 총괄적으로 가르쳤지만 오늘의 學校敎育은 모두 分業化되어서 많은 敎科가 그것을 나누어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敎科와 重複된 것을 敎育의 目標나 內容으로 내세우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많은 分科 중 국어교육이 맡은 것은 韓國語使用能力伸張이며 흔히 논의되는 思考力의 伸張은 그 一部分을, 언어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論理的 思考가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論'이라거나 '論理'란 그 자체가 언어의 문제인 것이다.

(2) 國語敎育과 國語科敎育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便利한 점도 있으나 필자는 國語科란 국어교육을 담당하는 敎科名으로만 사용한다.

성했을 때 한 국가가 계획 시행하는 교육의 총체적인 目的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 교과라도 거기 負擔된 責務를 다하지 못할 때는 한 국가의 교육이 跛行을 면하지 못할 것임은 明若觀火한 이치다.

우리의 教育法에서 규정한 國語科 설치의 근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국어교육은 韓國語使用能力의 伸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國語는 韓國語이기 때문이다. 韓國語라고 하거나 國語라고 하는 것은 ‘言語’를 含意한다. 따라서 國語教育은 言語教育이다. 初·中·高等學校 또는 大學에서의 언어교육은 國語教育과 外國語教育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국어교육은 같은 언어교육인 外國語教育과도 그 目標나 內容이 다르고 勿論 기타 모든 教科의 교육목표나 교육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모든 教科교육이 제 소임을 다했을 때 총체적인 교육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分割된 독자적인 領域이 있기 때문이다.

教育法에 明示된 바와 같이 國語教育의 一般目標은 ‘國語 使用能力의 伸張’이다. 이런 관점이 例컨대 ‘思考能力의 伸張’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도의시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으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思考能力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각 教科가 원칙적으로 모두 獨自의인 측면에서 接近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思考가 言語에 의존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未知의 것으로 남아 있으나 적어도 論理的인 思考는 言語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國語教育은 國語의 適格한 使用能力을 통해서 論理的인 思考能力의 一部를 기를 수 있는 것이다. 主語나 敘述語나 하는 用語 자체가 論理學에서의 借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助詞나 語尾의 誤用 하나하나가 곧 話者의 論理的인 思考能力의 결함과 직결된 것이라 생각된다. 論理的인 思考能力을 기른다는 점에서는 國語보다는 論理的인 操作을 數學의 演算으로 행하는 記號論理學이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文化的인 生活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思考能力의 일부가 언어인 국어의 교육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自信한다. 흔히 말하는 論理的인 文章(문장이란 그 자체는 ‘언어’의 實體인 것이다.)과 情緒的인 文章에 의해서 길러지는 思考能力이 같은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언어는 어떤 종류의 思考內容도 表現한다. 문장을 많이 읽혀서 思考能力을 기른다는 것이 全的으로 言語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코 脫言語일 수는 없으며 國語教育이 책임져야 하는 思考能力의 伸張은 國語使用能力의 伸張과 직결된다.

이런 관점에서든 國語教育의 目標을 ‘國語使用能力의 伸張’에 둔다는 것은 온당하며 教育法의 規定은 적절한 것이라 여겨진다.

〈小結〉

- 1) 우리의 國語教育은 韓國語를 가르치는 言語教育이다.
- 2) 국어교육의 目標은 國語使用能力의 伸張이다.

Ⅲ. 靑少年의 言語發達에 適合한 具體的인 教育的 目標와 內容의 段階別 設定⁽³⁾

언어의 체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言語專門家도 그것을 완벽에 가깝게 분석 기술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생후 수개월 후부터 수년 동안에 母語의 기초적인 발화습관을 완전히 습득한다고 한다. 아무런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母語의 사용법을 습득한다고 한다. 사람이 한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는 것은 그 언어의 완전한 體系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체계를 내부에서 再構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자명해진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피교육자의 國語學習을 全的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國語使用의 實際를 가장 豊富하게 그리고 가장 效果的으로 經驗시켜서 국어의 의미·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국어사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發達段階에 맞추어서 국어를 效果的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학교에서가 아니면 학습할 수 없는 國語使用法을 교육·훈련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의 기능 내지 역할이다.

國語教育은 단순히 一定量의 知識이나 技能을 각급 학교별로 또는 학년별로 적당히 등분하여 습득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被教育者의 言語發達段階에 맞추어서 학습의 내용과 분량이 조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인의 생후부터 靑少年期를 벗어날 때 까지의 平均的인 言語發達에 관한 段階別 資料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 맞추어서 국어교육의 단계별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被教育者들의 각 發達段階에 적합한 수준의 國語의 使用法을 교육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國語教育이 效果的으로 행해져서 피교육자들의 국어사용능력을 충분히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총체적 단계별 교육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우리 靑少年들의 幼兒期로부터 靑少年期까지의 言語發達을 광범하게 연구하여 얻은 신뢰할 수 있는 資料인 것이다.

言語發達의 조사·연구는 音韻·語彙·文法·意味 그리고 抽象化 등 여러 부문별로 하되 사람의 成長過程과 더불어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어 가는가를 發話와 聽取理解⁽⁴⁾로 구분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거기서 얻어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우선 國語教育의 綱領

(3) 拙稿(1987) “言語發達과 國語教育” (국어교육 59·60 合併號,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에 좀더 상세한 내용이 있음.

(4) 音聲言語의 경우는 ‘發話—聽取’이고 文字言語의 경우는 ‘글—讀解’가 된다

인, 教育目標과 教育내용의 구체적 설정 제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教育課程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연구가 殆無하기 때문에 국어교육의 기반으로 이용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좀 심하게 말하면 初·中·高로 구분되고, 또 初·中校의 경우는 다시 학년별로 구분해 놓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형편이다.

被教育者들의 言語發達과 그 段階別 특징에 대한 지식은 國語教育의 評價에도 깊이 관련된다.

〈小結〉

1) 한국인의 幼兒期로부터 靑少年期까지의 平均的 言語發達의 조사와 연구는 효과적인 국어교육의 계획에 절대 불가결의 先行 課題다. 국어교육의 段階別 教育목표와 내용의 설정 제시는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理想이다.

2)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 얻은 音韻·語彙·文法·意味·抽象化 등등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결과로 얻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被教育者들의 發達段階別 水準에 맞는 구체적인 教育目標과 內容을 設定할 수 있다. 교육의 段階別 目標과 內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教育課程은 의미가 없다.

3) 하루라도 빨리 이 조사 연구에 착수 완결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국어교육을 正常軌道에 올려 놓는 첩경이다. 이를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국어교육의 방향은 장기화할 것이다.

IV. 教科書의 體裁와 內容의 改革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體裁가 어떤든 간에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충실하며 거기서 제시된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다루어지도록 편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잘못 되어 있으면 좋은 교과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교육과정이 횡설수설하고 있으면 거기 따라서 교과서도 지리멸렬한 雜多한 文(章)集 밖에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거의 5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改定하고 교과서를 개편해 왔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한 항목도 피교육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에서 교과서는 아무리 자주 개편해 보아야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언어발달에 대한 研究 결과 얻은 資料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아무리 改定해 보아야 改善될 것은 없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 놓는 것 이외에 얼마나

效能이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형편에서 진정하고 본격적인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설정은 누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어떤 개인의 책임도 아니다.

교육과정의 제 본래의 모습을 보일 때, 그만큼 연구가 진행된 뒤에 비로소 교과서다운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현재 우리의 교과서는 소위 '讀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약간의 언어사용에 관한 연습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독본으로서는 별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어교육을 시행하는 유일한 교과서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필자는, 發音에서부터 語彙・統辭・意味・表記 등등 국어사용의 모든 면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신장시켜 줄 수 있도록 組織된 진정한 의미의 教科書가 따로 있고, 각급학교에서의 교과 운영상 시간이 허락하면 '讀本'을 정식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학생이 스스로 읽어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응용 발전시키기 위한 보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讀本'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때의 '독본'의 내용과 체제는 별도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다.

현재까지의 '讀本'型的 국어교과서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교육자들의 언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어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要件이 결여된 것이다. 치명적인 결함이다.

2) 남의 文章을 모아서 만드는 것인데 그 선정의 기준이 '言語'의 수준보다는 '思想內容'에 있었다. 특히 사회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특정한 사상적 유행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장이 대거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어교과서의 문장은 그 내용이 아니라 '언어'에 기준을 두고 선정이 되어야 한다.

3) 교재로 선정되는 문장의 수준, 달리 말해서 難易度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가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국어교육과 무관한 원칙에 의해서 선정된 문장은 교과서의 개편에 따라 학년과 학년은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무원칙하게 건너들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오래, 같은 책에 수록되어 있었으니까 바꾸어 보자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것은 교재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냐고 非專門家에 의해서까지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 중의 하나다. 국어교육이 이런 모양으로 행해져 온 것이다.

4) 국어학, 언어학일반 그리고 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방법을 논한 글들이 많이 선택되어 왔는데, 이들은 國語使用能力과는 거리가 먼 知識 注入 위주의 교육을 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더구나 그러한 문장 중에는 학문적으로 공인 받지 못하고 '誤謬'로 지적되는 내용을 담은 것들도 없지 않았다.

5)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과서에서 교재로 채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들이 비교육적인

이유로 해서 선정되는 예도 없지 않았다. 어떤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好惡나 權威, 勢力版圖 등과 관련해서 理性을 잃은 교재의 선택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6) 教科書의 편찬과 改編에 주어지는 期間이 너무 짧다. 형식 상으로는 1년에 300面 정도의 교과서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안될 말이지만, 실제로 교과서 편찬과 개편에 쓸 수 있는 시간은 數個月에 불과하다.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좋은 교과서가 나온다. 한번 개편한 뒤 5년 뒤에 다시 개편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教育課程 改定과 함께 教科書의 改編을 위하여 5년간을 活用할 수 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과서의 연구와 제작에 드는 비용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낭비가 아닌 效率의인 經費의 사용을 전제로 충분한 豫算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7) 현재 국정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많은 국어교과서가 國定이라야 하느냐 검·인정이 아니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言語 發達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피교육자의 발달단계 수준에 적합한 教育目標과 內容이 科學的으로 設定된 뒤라면 國定을 止揚하고 檢認定으로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다. 다만 檢認定이 絕對 公正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교과서의 數와 검·인정 출원 시기에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小結〉

1) 우선 국어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科學的인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설정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한다.

2) 教科書는 진정한 의미에서 被教育者들의 發達段階에 相應하는 國語使用能力을 伸張시키기 위한 것과 거기서 배운 것을 確認하고 應用하는 훈련을 위한 '讀本'으로 구분하여 二元體系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들 教科書는 專門家에 의하여 충분히 研究된 다음 現행 교과서가 가진 모든 결함을 시정하고 진정하게 被教育者의 國語使用能力의 伸張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4) 教科書에 관한 制度도 종전대로 하건, 革新을 하건 그 長短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研究 檢討할 필요가 있다.

V. 國語科의 內容領域 改編

우리 교육과정에서 국어과교육의 내용영역으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넷 또는 여기에 <언어>, <문학>을 더한 여섯으로 나뉘어 왔다.

후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필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영역 설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말하기〉〈쓰기〉와 〈듣기〉〈읽기〉를 〈表現〉과 〈理解〉로

〈말하기〉와 〈쓰기〉는 音聲에 의한 言語의 實體化나 아니면 文字에 의한 實體化나 하는 發信方法의 차이와 다소의 文體論的인 차이에 의한 대립이다. 음성에 의하거나 文字에 의하거나 言語行使의 전 단계의 過程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心理的인 메카니즘이 質的으로 다르지는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는 실지로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교육목표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다음은 五次 교육과정의 一般目標 중 〈말하기〉(A)와 〈쓰기〉(B)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밑줄 필자)

- A.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a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정확하고 b 효과적으로 c 말하게 한다.
 B.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a 생각과 느낌을 선정, 조직하여 b 창의적으로 c 쓰게 한다.

〈말하기〉와 〈쓰기〉의 차이는 밑줄친 a : a' b : b' c : c'의 세 곳이다. 그런데 a : a'는 “내용”과 “생각과 느낌”으로 결국 같은 것이고 b : b'는 “효과적”과 “창의적”인데, “효과적”이 〈말하기〉만의 특성이 아니며 “창의적”이 〈쓰기〉만의 특성이 아니고 이 둘은 〈말하기〉와 〈쓰기〉 양쪽의 言語表現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말하기〉와 〈쓰기〉의 차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c : c'는 ‘領域’의 표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말하기〉와 〈쓰기〉의 일반목표 사이에는 아무런 質的인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五次 教育課程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말하기〉와 〈쓰기〉의 교육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면 관계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引用하지는 않으나 內容領域의 標識인 語句 이외에는 거의 모두가 〈말하기〉와 〈쓰기〉 모두에서 教育內容으로 제시 표방될 것들이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表現〉으로 하였으면 한다.

〈듣기〉와 〈읽기〉 또한 다를 것이 없다. 話者가 음성으로 말한 것은 귀로 듣고 文字로 쓴 것은 눈으로 읽는다. 이것은 결국 聽覺과 視覺에 의존하는 受信方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 단계인 心理的인 메카니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엄밀히 따져서 국어교육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듣거나 읽을 때의 態度나 姿勢보다는 理解能力이다. 이해능력의 伸張이 국어사용능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다.⁽⁵⁾

〈듣기〉와 〈읽기〉의 교육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는 〈듣기〉 B는 〈말하기〉의 목표다. (밑줄 필자)

- (5) 다리를 책상 위에 얹어 놓고 남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은 態度나 姿勢가 나쁜 것이거나 하나 완전히 理解하고, 그와 반대로 단정히 앉아서 남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기는 하지만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어느 편이 국어교육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알 것이다.

- A. 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하게 한다.
- B. 글의 내용과 짜임을 분석, 종합하고, 이해, 판단하며 읽게 한다.

A의 밑줄친 “말”을 ‘글’로 바꾸어도 전혀 무관하다. 그 다음의 말을 하나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B의 밑줄친 “글”을 ‘말’로 바꾸고 “읽게”를 ‘듣게’로 바꾸어도 조금도 어색해지지 않는다. A와 B가 함께 <듣기>와 <읽기> 두 영역 모두의 교육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말과 글은 發言方法의 차이이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B 모두가 필요하다. 요컨대 교육과정에서의 <듣기>와 <읽기>의 교육목표는 이들 두 영역의 공통된 교육목표인 것이다.

<듣기>와 <읽기>의 교육내용을 비교 대조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거의가 音聲言語의 聽取 理解와 文字言語의 讀解 能力을 伸張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들이다. 다만 <듣기>의 교육내용 중 제 7항⁽⁶⁾ 만은 <듣기>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은 하나로 통합하여 <理解>로 하였으면 한다.

요컨대 국어교육의 內容領域인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듣기>와 <읽기>는 각각 <表現>과 <理解>로 兩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학> 領域의 <理解>에의 統合⁽⁷⁾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교육목표 제 6 항은 <문학>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고 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 1)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한다.
- 2) 한국의 고전 및 대표적인 현대 작품을 읽고 감상한다.
- 3) 문학 작품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한다.
- 4) 여러 유형의 문학 작품의 특성을 이해한다.
- 5)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을 읽고, 작품 감상력을 기른다.
- 6) 문학과 언어, 인생,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와 같은 6개 항목을 들었다. 교육목표나 내용의 대부분이 作品의 理解, 作品의 鑑賞에 치중하고 있어 ‘國語教育 안에서의 文學의 位置’라는 관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어’ 과목 <문학> 영역과 관련된 指導上의 留意點으로 제시된

‘문학’ 영역의 지도에서는 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학 작품의 여러 요소(인물, 구성, 배경, 시점, 주제, 어휘, 운율 등)에 대한 지도는 문학적 체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최선의 결론에 이르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며 듣는다.”로 되어 있다.

(7) 이 문제는 五次 教育課程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와 같은 내용 또한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評價上의 留意點 또한

‘문학’ 평가는 문학에 대한 이해와 작품의 올바른 이해 및 감상에 중점을 두되, 문학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품의 해석 및 감상 능력에 중점을 둔다.

와 같이 되어 있어 무난하다.

이와 같은 교육의 목표나 내용은 결국 대표적인 언어작품의 한 가지인 문학작품을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문학작품은 예술작품이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日常 그것을 읽는 것이고, 그것이 言語作品이라는 점에서 문학작품을 읽어서 이해하고 鑑賞하는 能力을 기르는 것은 國語教育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국어교육에서 차지하는 位置는 <읽기>다. 국어교육의 內容領域으로 <문학>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읽기>에 편입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는 것이 別途 領域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異質感을 감소시키기도 할 것이며 국어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문학>이 별도 영역으로 설치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점 유의할만 하다.

<문학>은 <읽기>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읽기>는 <듣기>와 함께 <理解>라는 영역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요컨대 ‘국어과 교육’의 내용영역으로서의 <문학>은 별도 영역으로 설치되기 보다 <理解>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언어> 領域의 <表現> <理解>에의 統合⁽⁸⁾

‘국어’ 과목 <언어> 영역과 관련된 교육목표는

언어와 국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게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 1)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을 파악한다.
- 2)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3)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 4) 표준어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다.
- 5) 현대 국어의 음운, 형태, 문장, 의미상의 구조를 이해한다.
- 6) 국어와 국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한다.
- 7) 언어와 문자, 민족,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국어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와 같이 7개 項이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만한 것쯤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할

(8) 五次 教育課程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大學의 講義와 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의 授受를 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어교육의 핵심인 '국어사용능력'의 측면을 소홀히 하는 데 한 몫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教育內容이 과연 고등학교에서 교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언어> 영역은 없애고 국어교육에서 <表現>과 <理解>의 能力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한 言語에 관한 知識만을 골라 <表現>과 <理解>의 두 領域에서 平易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의 규칙'이라는 의미에서의 '文法知識' 같은 것도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을 위한 規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학습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으로 학습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언어>를 별도 영역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의 授受로 흐르기 쉽고 따라서 국어교육의 異邦이 되기 쉽다.

요컨대 <언어> 영역은 극히 필요한 요소만 가리어 <表現>과 <理解>에 統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小結>

- 1) <말하기> <쓰기>는 <表現>으로 一元化하고 <듣기>와 <읽기>는 <理解>로 一元化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2) <문학> 영역은 <理解>에 통합한다.
- 3) <언어> 영역은 <表現>과 <理解>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

VI. '문학' '문법' '작문'의 處理

이들의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양각색으로 다루어지는 듯하다. 꼭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내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 五次 教育과정에서는 이들이 모두 '국어'와 함께 國語科의 4個 科目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자체의 문제도 문제이려니와 '문학'과 '국어'의 <문학> 영역 사이, '문법'과 '국어'의 <언어> 영역 사이 그리고 '작문'과 '국어'의 <쓰기> 영역 사이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필자로서도 자신 있는 최종 결론이 아니며 임시적인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 둔다.

1. '문학'의 獨立教科 設置 考慮

五次 教育과정 '문학'의 教育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과목(특히 '문학' 영역)의 教育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

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1) 문학 일반과 한국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2)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상상을 통한 창조적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게 한다.
- 3)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정서와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족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근거로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 <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 <한국 문학의 민족 문학적 특징>의 三個條 아래 각각 4·7·4개씩의 항목의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두번째 <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表現>과 <理解>에 歸屬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말하자면 국어교육의 핵심권을 벗어난 문제들이다. 文學概論 國文學概論 國文學史의 지식들이다.

이와는 달리 '문학' 科目의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은 국어교육의 핵심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은 文學의 言語外的인 要素와 언어교육과의 본질적으로 調和될 수 없는, 아무도 어쩔 수 없는 특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어'와 '문학'이 모두 充實하게 教授·學習되기 위해서는 '文學'을 '국어과'와 같은 차원으로 格上하여 獨立教科로 설치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다면라도 문학 작품을 많이 읽혀서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여전히 국어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文學作品은 언어의 二大機能 중의 하나를 대표할 수도 있는 언어의 용법을 학습하는 좋은 言語作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文學 전공자(丘仁煥 外 4人, 1988)들의 조심스러운 發言을 인용해 둔다.

우리들의 작업과정에서 끊임없이 머리를 썩힌 것은 '國語敎育과 文學敎育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문제였다. 문학교육을 국어교육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범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문학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領域으로 설정하되 그 수준을 理想的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著者들의 고민은 알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국어교육과의 관련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방황하고 있기도 하다. 당연한 일이다. 앞과 뒤가 다소 모순되는 점이 없지도 않다. 그런데 이 저서의 내용이 국어교육과 분리된 獨立教科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필자는 용휘할 능력이 없다. 다만 필자로서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의 眞意가 무엇이며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文面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저자들의 의견에 全的으로 동감한다.

오전대 국어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력을 기르기 위하여 많은 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하여야 하지만 그 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文學의 理論 기타의 지식 등등을 가르치

고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학’ 科目은 ‘國語科’와 같은 次元의 獨立教科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는 國語教育과 文學教育 모두를 서로 해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해내는 唯一한 길이 아닌가 한다. 국어교육 안에서 다루어질 때와 독립교과로 다루어질 때 그 教育內容의 범위가 判異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點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문법’ 科目 <表現>에의 統合

지금까지의 文法 敎수(teaching)가 大學의 文法學講義 비슷하게 文法的인 知識 위주의 것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自然言語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규칙이라는 의미에서의 文法은 <表現>과 <理解>의 능력 신장을 위한 규범으로 활용되도록 敎수·학습할 것이며 生硬한 知識으로 注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表現>에서는 適格한 표현을 위하여 文法이 활용되고 <理解>에서는 發信者의 ‘표현’을 잘 이해하는 데 文法이 필요하지만 후자보다는 前者에서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話者의 文法’ ‘表現의 文法’에 焦點을 맞추어 敎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理解>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신장될 것이다. <表現>이란 거의 표현하고자 하는 內容에 따라 적합한 語彙項目의 선택과 그 結合으로 發話 내지 文章이라고 하는 것을 엮어내는 心理的 過程과 音聲 또는 文字에 의한 言語의 實體化다. 그런 能力이 뛰어나면 남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은 이에 比例하여 증가한다고 여겨진다.

언어의 학습을 위하여 ‘文法과 作文’이 한 권의 책자로 출간되는 일이 있거니와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문법’을 완전히 ‘국어’의 <表現>에 흡수하는 경우도 역시 ‘文法과 作文’을 調和 있게 연결하여 敎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에 별도 과목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이러한 연결로 單一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작문’의 <表現>에의 統合⁽⁹⁾

‘作文’이란 문자 그대로 글을 짓는 것이며 ‘국어’의 <쓰기> 또한 고등학교 국어교육에서는 ‘筆寫’가 아닌 ‘짓기’ 즉 ‘作文’이다.

‘작문’의 敎育 目標을 보면

국어 과목(특히 ‘쓰기’ 영역)의 敎育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글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목적, 대상, 상황 및 사고 전개의 유형에 맞도록 생각과 느낌을 효율적으로 선정, 조직,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와 같은 前文 다음에 다음과 같은 3개 項을 제시하였다(밑줄 筆者).

- 1) 의사 표현 행위로서의 작문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9) 이 문제 또한 五次 敎育課程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 작문의 기본 원리를 알게 한다.

3) 목적, 대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3개 항에 해당되는 교육내용으로 <작문의 특성> <작문의 원리> <작문의 실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아래 각각 3·5·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작문의 실제>는 ‘국어’의 한 영역인 <쓰기>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는 마땅히 <表現>에 통합하고, <작문의 특성> <작문의 원리>는 각각 下位 項目들의 특성을 살려서 선별적으로 <表現>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을 듯싶다.⁽¹⁰⁾

요컨대 ‘작문’은 국어교육의 핵심 영역이며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와 관련지어 지도한다.”고 한 점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作文은 文法과의 잘 조화된 상태, 서로 겹들지 않고 一體화된 상태로 <表現>에 흡수 통합되는 일이 바람직하지만 別途 科目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도 이들은 역시 잘 연계되는 것이 좋다.

이상 ‘문학’ ‘문법’ ‘작문’의 처리 문제에 대한 필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였거니와 이들이 별도 과목으로 설치되느냐 ‘국어’의 영역으로 흡수되느냐에 따라 이들 여러 ‘과목’이나 <영역> 사이의 力學 관계는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는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小結>

1) ‘문학’은 ‘국어과’ ‘수학과’ 등과 같은 次元의 獨立教科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작품의 이해 감상은 여전히 ‘국어과’의 主要 內容領域인 점에 아무런 변동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2) ‘문법’과 ‘작문’은 ‘국어’의 <表現>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만일 別途 科目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도 이들은 서로 遊離된 상태가 아니라 一體化되어 單一 科目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런 모든 결정은 충분히 연구 검토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VII. 國語教師의 資質과 養成

국어교사는 언어교육인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수·훈련하는 데 결격이 없는, 자질과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국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어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바로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1) 국어교육의 기본 성격을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나 내용 그리고 국어교

(10) <表現> 能力의 伸張에 중점을 두어 교수 학습하면 거기 따라서 <理解> 能力은 신장된다고 본다.

육의 全過程을 熟知할 것은 물론 그에 대한 굳은 신념의 소유자라야 한다.

2) 언어와 언어사용에 관한 모든 측면으로부터의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한국어의 구조와 의미·용법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3) 교사 스스로가 정확한 발음과 적격한 文章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4) 피교육자들의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발음과 不適當한 文章을 바로 矯正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5) 주어진 教材를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스스로 교재를 선정하고 구성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주어진 교재의, 학습 효과 提高를 위한, 再構成 능력 또한 필요하다.

6) 국어사용의 현실에 대한 銳利한 觀察力과 정확한 判斷力의 소유자라야 한다.

7) 국어교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문학작품과 문학의 이론 기타와 관련된 문장들이므로 문학 일반과 국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교육의 목표가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거기 따라 국어교사의 할 일이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이 국어 교사의 資質을 규정하며 교사 養成을 위한 국어교육학科 教育課程을 결정한다. 또 국어교육학科가 단순한 교사 양성의 기능만을 가지느냐 아니면 學問研究의 기능까지를 아울러 가지느냐가 교육과정 내용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우선 박사과정이 설치된 국어교육학科가 단순한 교사 양성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 '국어교육학'이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이제 각 教科教育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 되기에 이르렀고 '국어교육학'을 定立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박사과정도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적어도 국어교육학科의 교육과정은 교사 양성과 국어교육학자 양성의 두 가지 기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국어교육학科의 專攻의 문제다. 흔히 그렇게 해 온 것처럼 國語學이나 國文學만이 專攻이고 '국어교육'을 敎職 云云하는 일은 당치도 않다. 국어교육학科의 전공은 어디까지나 國語教育(學)이어야 하며 국어학이나 국문학이 아니다. 이것은 教育課程上 국어학 과목과 국문학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귀속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어교육'을 敎職 云云하고 국어학 국문학이 사범대학 국어교육학科의 전공영역이라고 한다면 人文大學 국어국문학과의 구별이 없어진다. 이는 국어교육학科 나아가서는 사범대학 존립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논의로 발전될 수도 있게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科의 敎授陣의 구성 또한 중요한 문제다. 각 사범대학 국어교육학科의 교수진은 거의 國語學 國文學 전공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의 한 두 교수가 教科教育 관련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거나 외부로부터 한 두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教科教育을 전담하는 교수가 있으나 그것도 한 사람이 고작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어교육학科 教育課程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2 내지 3개 과목이 教科教育에 배당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 전임교

수의 책임시간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전임교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영역의 강의도 맡아야 한다.

〈小結〉

1) 국어교사는, 理想을 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해서 피교육자들의 國語使用能力의 伸張이라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충분히 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어교육학과의 專攻은 國語教育學이며 이것이 차지하는 이수 과목의 數나 學點의 比는 원칙적으로 다른 많은 學科의 專攻領域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¹¹⁾

3) 教授陣은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專攻이 主가 되고 여타의 것은 副가 되어야 한다. 國語學이나 國文學 같은 基礎學問 영역에서도 전임 교수가 넉넉할수록 좋지만 語學·文學 전공 교수뿐이어서는 아니된다.

4) 국어교육의 均質化를 위하여 모든 국어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상당한 부분 共通必須로 될 필요가 있다.

VIII. 國語教育 管理·運營의 專門性 提高

(한)국어를 母語로 하는 話者들은 자신의 모어인 국어나 국어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한 선입견의 延長線에서 국어교육의 문제라면 누구나 참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권라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學校教育의 한 分科로서의 국어교육은 많은 教科教育의 하나로 전문가들에 의한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過程 하나하나 역시 전문가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國語教育의 모든 過程 하나하나를 논의하는 경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어교육에 관련된 여러가지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이나 국어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한 의도적인 발언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속으로는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그런 발언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히 第一言語나 第二, 第三言語의 教育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 하나도 읽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多數 의견이 대부분의 문제를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수행되는 국어교육이 바르게 수행될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광복후 50년이 되도록

(11) 共同研究(1988)로 된 “대학원(석·박사과정) 국어교육과의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발연구”(師大論叢 第36輯,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內容은 필자의 의견과는 다름.

국어교육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기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국어교육이 正常 軌道에 들어서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일이 많지만 국어교육을 관리하는 각계 각층 사람들의 국어교육 논의의 風土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制定 改正을 비롯하여 교과서의 편찬 기타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각종 회합에서의 專門性이 提高되어야 한다.

2) 그와 같은 會合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을 委員으로 위촉할 것이며, 委員으로 위촉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논의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양할 줄도 아는 풍토가 아쉽다.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言語와 言語教育에 관한 논문 저서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이 국어교육 논의에 참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일이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모임일수록 사무적으로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즉 專門家들에 의해서 검토·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專門家라고 하는 것은 國語教育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研究를 했거나 하고 있는, 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국어학자나 국문학자가 곧 국어교육 專門家 또는 言語教育學者라는 생각은 국어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小結〉

1) 국어교육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논의와 교육과정의 制定 改正 기타 국어교육의 管理·運營의 專門性이 提高되어야 한다.

2) 국어교육의 專門性이 提高되고 국어교육학이 定立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科學的인 研究가 전제되어야 한다.

Ⅸ. 要 約

국어교육의 개혁은 오늘의 우리 처지로서는 국어교육을 正常 軌道에 올려 놓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우선 한국 청소년들의 言語發達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당국의 지원 아래 어떤 단체에 선가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初·中·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은 그들의 言語發達段階에 적합하도록 音韻·語彙·統辭·意味 기타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에 의해서 교육목표가 각 段階別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훈련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評價를 위해서

도 필수적이다. 이를 도의시한 현재의 評價는 그 의미가 크게 減殺될 수 밖에 없다.

3) '국어'의 內容領域은 <表現>과 <理解>로 하는 것이 能率的이다.

4) '문학'은 '국어과'와 같은 次元에서 별도 教科로 格上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문법'과 '작문'은 <表現>과 <理解> 특히 <表現> 영역에 흡수하는 것이 좋고 調和 있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별도 과목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이들의 연계는 教育效果를 올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6) 教育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不可缺의 요소들로 教育내용을 설정하되 이 또한 段階別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이와 같은 절차가 끝난 다음에 教育과정의 만들어지고 거기 설정된 教育목표와 教育내용에 근거하여 최대로 教育效果를 올릴 수 있는 教科書를 편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被教育者의 각 發達段階에 적합한, 그들의 音韻・語彙・統辭・意味 기타 國語의 使用能力을 최대한으로 發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의 교과서는 소위 讀本에 練習問題를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며 文章의 선택 또한 피교육자들의 언어 발달을 전혀 도의시한 것이다.

8) 教育內容領域은 충분한 研究 檢討를 거쳐서 合理的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것은 개인의 임시적인 결론일 뿐이다. 특히 '문학' '문법' '작문' 등 별도 科目의 설치 여부는 충분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9) 教科書는 國定으로 하거나 檢認定으로 하거나 국어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教育課程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國定으로 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拙速 편찬을 지양하고 충분한 研究期間을 가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檢인정의 경우는 教育과정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기타의 檢認定 基準을 엄격하게 해야 하되 檢認定 出願時期와 適格判定 教科書 數에 制限을 두지 말아야 한다.

10) 國語教師의 質을 높이고 또 均質化하기 위한 教師養成 制度와 국어교육학과의 教育課程 教授陣 구성 기타의 문제가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역시 앞에서 提示한 것은 필자 개인의 한 의견일 뿐이다.

11) 모든 國語教育 論議와 그 管理・運營의 專門性이 提高되어야 한다.

12) 現在의 國語教育을 철저히 分析 檢討하여 모든 誤謬를 시정하고 沈滯 不振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13) 再三 강조하거니와 국어교육은 그 計劃 準備의 段階에서부터 評價 기타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全過程 그리고 教師養成의 모든 문제가 철저히 研究된 後에 改革될 수 있다.

主要參考文獻

A. 丘仁煥 外(1988), 文學教育論, 三知院.

盧命完 (1988), 國語教育論, 한샘(이 속에 많은 論文이 들어 있음).

B. 本稿에서 辟력한 의견이 각각, 비교적 상세히 논의된 拙稿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關聯 參考文獻은 각각 그 곳에 있음.

李庸周(1975), “國語教育에 있어서의 本質과 非本質,”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論文集 12.

李庸周(1976), “國語教育 改善에 관한 小論,” 金亨奎教授 停年退任記念論文集,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李庸周(1982), “再檢討되어야 할 國語教育의 문제들,” 국어교육 4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李庸周(1986), “初·中·高校에서의 言語知識教育,” 한국교육개발원 5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세미나.

李庸周(1986), “教育에 있어서의 文學의 位置,” 朴鵬培教授 回甲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

李庸周(1986), “國語教育과 國語教師,” 국어교육 57·5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李庸周(1987), “국어교육 개혁을 위한 기본 과제”, 열드나 이응호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李庸周(1987), “言語發達段階와 國語教育,” 국어교육 59·6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李庸周(1987), “國語教育 管理·運營의 專門化에 대하여,” 국어교육 61·62,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李庸周(1988), “慣習화된 道具使用의 教育,” 先淸語文 16·17,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李庸周(1988), “國語教育學科의 專攻領域,” 仁山金圓卿博士 華甲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

李庸周(1988), “國語教育의 核과 邊緣,” 師大論叢 第37輯,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RESUME

Etude Sur Reforme Radicale dans l'Enseignement du Coreen

Yong-Joo Lee

Toujours et encore, ils se trouvent des critiques et des polémiques dans le domaine d'enseignement du coréen en tant que matière scolaire. La présente étude a pour l'objectif de recherches l'analyse de l'état actuel des choses et des propositions en vue de rectification des erreurs commises dans le demaine depuis la libération.

Voici les arguments principaux de l'étude.

1) Vu que l'objectif de l'enseignement du coréen est une amélioration de compétence langagière, il faut que des recherches sur développement linguistique chez les enfants et les adolescents coréens le devancent. En se basant sur le résultat de telles recherches, l'but et le contenu selon les étapes d'enseignement seraient établis. Les manuels ainsi rédigés Péservent le maximum d'efficacité.

2) Quant aux but et contenu d'enseignement, le binarisme de 'l'expression' et 'la compréhension' est d'un bon rendement. Il vaudrait mieux que 'la littérature', 'la grammaire' et 'le thème' soient classés comme des matières indépendentes du même niveau que 'le coréen'. A propos, on fera mieux de faire comprendre 'la grammaire' et 'la composition' à 'l'expression' en espérant une corrélation harmonieuse.

3) Pour la direction, la gestion et même pour des discussions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du coréen, il faut que le professionnalisme s'épanouisse ainsi que les recherches scientifiques.